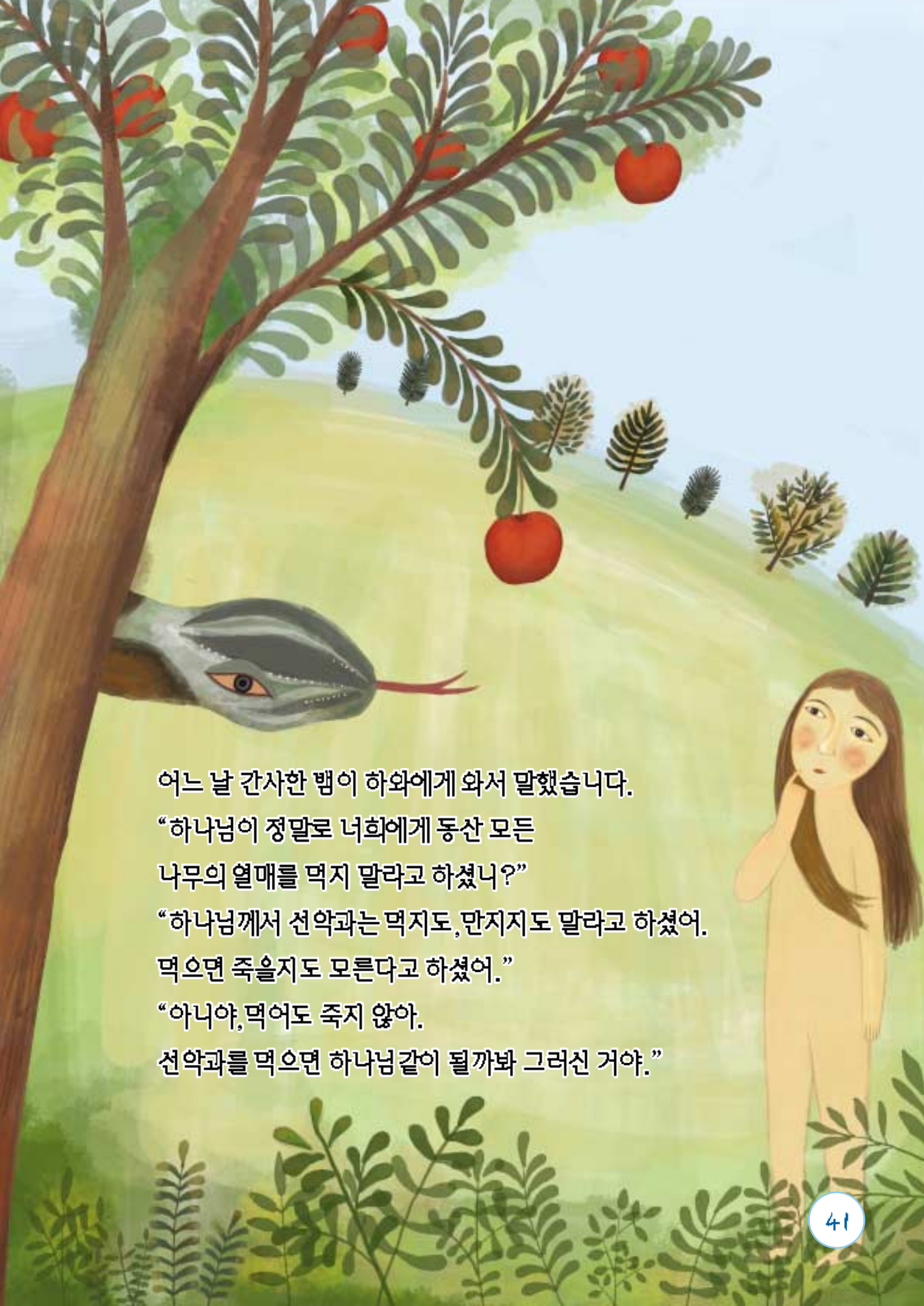


5 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에덴동산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맛있는 과일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에덴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간사한 뱀이 하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러신 거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열매가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선악과를 따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벌거벗었잖아. 아이 부끄러워.”
깜짝 놀란 두 사람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교제해요

1.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생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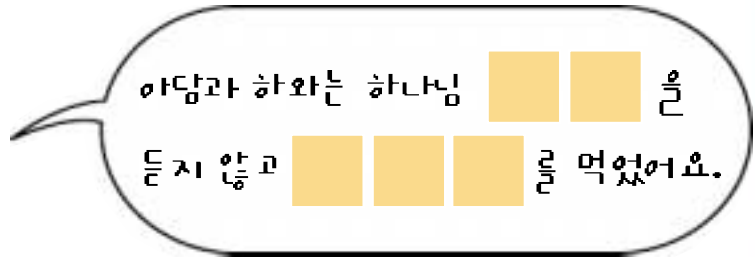


② 배



③ 선악과

2.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어 보세요.



3. 하나님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선악과는 맛있다



② 부끄러움

암송

암송을 따라 써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기도하는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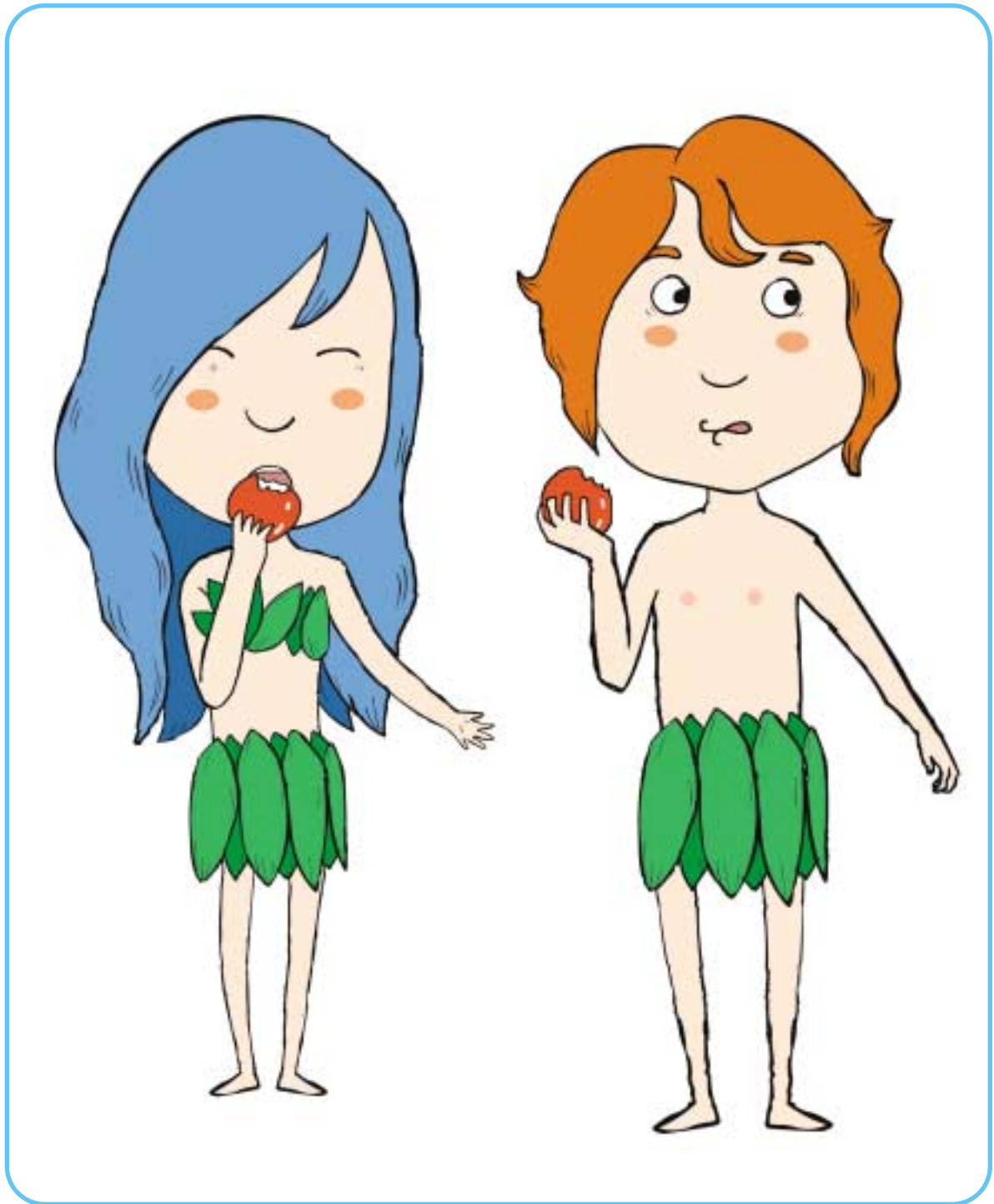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꾸 어기려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 주세요.

나의
기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탕에 색칠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색칠해 보세요.

